

# 전남도, 우주항공·데이터·반도체로 미래 100년 다진다

## 올해 전략신규사업 18건 463억 확보 미래신성장산업과 시너지효과 연계

전남도가 올해 향후 미래 100년을 좌우할 우주항공, 데이터,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의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의 긴급재정 기조에도 2024년 미래 전략산업 분야 신규사업이 역대 최다인 18건(사업비 463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기존 미래 신성장산업 관련 55건(2357억원)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함께 연계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전남도는 7일 “지난해 2024년 신규사업을 미리 발굴해 연초에 수립되는 국가중기사업계획에 반영시키고 정부부처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설득해 미래전략과 관련된 신규 사업들을 대거 반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나선다. 지난해 3월 고흥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고 8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 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총

사업비는 2408억원이다. 올해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 민간발사장, 기술사업화센터 등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1조6000억원) 기반 조성에 본격 나서고, 하반기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최종 선정을 위한 예산 통과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 차세대 미래비행체 산업을 육성한다. 국토부의 2025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전국 최대 비행시험공역(직경 22km·면적 380km<sup>2</sup>),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테스트베드(374억원) 등 우주 항공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용화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등 항공 관련 전문기관, 앵커 기업을 유치해 무인기산업 집적화단지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형 반도체산업도 본격 육성한다. 전남도는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 등 공모에 선정(2건 797억원)됐다. 차세대반도체로 각광받는 화합물 반도체센터(36억원)를 국내 최초로 개소해 설계부터 제조, 후공정까지 전 공정을 처리할 기반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글로벌 화

합물반도체 파운드리를 비롯한 국내 설계, 패키징, 소부장 기업을 집적화하고 실증 인프라 고도화 및 파트너십을 확장할 계획이다.

미래 데이터 신산업,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에도 나선다. 2035년까지 권역별로 40MW급 데이터센터를 100기 유치하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목표다. 올해 장성과 광양 데이터센터를 조기에 착공해 데이터센터 구축 우수사례로 시군에 전파,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고도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영광을 중심으로 지난해 투자선도지구에 선정(685억원)돼 산업 선두주자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2020년부터 목포 남항을 중심으로 구축 중인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사업(총사업비 1560억원)도 올해 연구개발(R&D) 4개 사업에 국비 178억원을 확보해 순항 중이다. 2025년 연구지원 기반시설이 준공되면 정부출연연구소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친환경연료연구소)도 이전에 전남에서 본격적인 친환경선박 연구활동을 시작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김영록 지사, 글로벌 투자유치 미국 순방길

### 전자제품 전시회 전남관 참관 농수산 가공식품 공장 투자협약 의과대학 설립 사례 벤치마킹

김영록 전남지사가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CES)’ 전남관 운영 참관, 수출용 농수산물 가공식품 공장 투자협약, 의과대학 설립 성공 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해 8일 7박9일 일정으로 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 기간 김영록 지사는 9일부터 12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에서 전남관 운영, 투자유치, 세계 기업과 소통 등 다양한 행보로 전남을 홍보할 계획이다.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정보통신(IT) 전시회다.

김영록 지사는 첫날인 9일 전시회 전남관 개관식에서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미래 산업을 조망하고, 대비한다는 취지로 재생에너지100(RE100)과 넷제로(Net-zero),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등 3대 비전을 선포한다.

이어 전남지역 참가기업 11개사를 방문해 격려하고, 수출기업과 농수산물 가공식품 공장 투자유치 협약을 하며, 기업관(기아·존디아·아마존 오토모티브·현대 모빌리티 등)을 참관한다.

10일엔 세계최대 엑셀러레이터(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기업)인 플러그앤플레이(PNP)와 전남의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하는 등 전남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개척에 나선다.

12일에는 뉴욕에서 H마트 본사와 농수산물품 수출협약을 할 예정이며, ‘전라남도의 맛, 남도감치 양념의 현대적인 맛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미드타운의 플라이트데크(The Flight Deck)에서 남도음식 홍보행사를 펼친다.

15일에는 캐나다의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을 방문, 두 대학이 협력해 단일 의과대학을 설립,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 최고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한다. 김영록 지사는 의과대학 총장을 면담하고 전남도의 의료문제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유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5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돌아보는 100년, 나아가는 100년’을 주제로 개최된 김대중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 내빈들과 김대중 대통령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고 미래 100년을 나아가기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대중 탄생 100주년...“국민 대통합 시대 열어가자”

### 전남도청서 기념식, ‘길 위에...’상영 12일까지 특별전...기념사업 진행

전남도가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이자 최초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지난 5일 전남도청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박홍률 목포시장,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 전남도 사회단체 회장,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돌아보는 100년, 나아가는 100년’을 주제로 진행된 기념식은 국민과 함께했던 지도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희망과 삶의 메시지가 담긴 기념 영상 상영, 주요내빈 기념사와 축사, 기념공연, 김대중 정신 계승 의미를 담은 단체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친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며, 김대중 정신을 토대로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뜻을 모았다.

김영록 지사는 기념사에서 “국난 극복에 앞장섰던 전라도민의 의(義)정신과 따뜻한 대중정신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김대중 정신의 토대가 됐다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며 “탁월한 통찰과 혜안으로 세계화 시대 초석을 다져주신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첨단전략산업과 스마트 농수축산업, 세

계 속의 남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해 세계로 뽐내며는 글로벌 전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명품에서 제작한 기념영화 ‘길 위에 김대중’을 특별 무료 상영됐다.

도청 윤선도홀에서는 오는 12일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상 사진과 옥중서신, 노벨평화상 수상 메달 등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전남도는 ‘인동초의 봄’ 창작 국악공연과 ‘포스트 코리아 베스트 DJ를 말한다’ 기념다큐 전국 방영 등 김대중 탄생 100주년 분위기를 이어갈 기념 사업을 1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北 포격 서해 NLL 북쪽 7km까지 근접

### 5~7일 서북도서 인근서 사격...군, 대응사격 안해

북한군이 지난 5일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 이북 지역에서 쏜 포탄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7km까지 근접했다. 7일 확인됐다.

북쪽이 5~7일 사흘째 서해 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한 것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의 한 소식통은 7일 오후 “북한군이 연평도 북방에서 사격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5일 오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 위주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은 서해 NLL 방향으로 사격을 실시했고, 발사된 포탄은 대부분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으나 NLL 이북 7km까지 근접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군 포탄이 낙하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었다.

이에 대응해 서북도서에는 해병대는 K9 자주포와 전자포 등을 동원해 대응사격을 했다. 우리 군이 발사한 포탄도 서해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북한군은 전날에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6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고, 이 중 일부는 서해 NLL 이북 해상 완충

구역에 낙하했다. 전날 북한군의 사격은 대체로 북한 내륙 방향 혹은 측방으로 실시돼 서해 NLL 방향으로 실시된 5일 사격에 비해 덜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됐고, 우리 군은 대응 사격에 나서지 않았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해상 완충구역으로 사격도 실시해 군사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금지구역이 사라지게 됐다”면서 앞으로 북한군의 포탄이 NLL 남쪽으로 넘어오거나 NLL에 근접했을 때 대응 사격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군사합의로 파괴된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 ▲해상 완충구역 내 사격 재개 등 합의 위반 행위를 계속하면서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개발부지 매매

###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지역 시흥대로변

매매금액 : 280억  
대지면적 : 1,379㎡(417평)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서울과 경기 서남부권을 잇는 시흥대로 광대로변에 위치한 자산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더블역세권 위치
- 매도자 명도조건이며, 제소전화해 완료
- 추천용도 : 오피스텔 및 근생 개발, 자동차전시장 및 판매장

대표 번호 02-554-9685  
010-4484-8110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명 정 오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3년 12월 2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 및 채권 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주식회사 그린사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학유정길 57-2  
청산인 정 형 복

### 상속한정승인공고

·망이행회(610524-1XXXXXX) 2023. 9. 18. 사망  
·최후주소 : 순천시 삼산로 135-6, 10층 107호 (용담동, 삼성아파트)  
민법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65조 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외함.  
2024년 1월 8일  
·사건번호 : 2023-단 519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영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한정승인수리일 : 2023. 12. 28.  
·청구인 : 이용범 외 1  
·공고기간 : 2024. 1. 8. ~ 2024. 3. 8.  
·신고처 : 법무법인 태원  
순천시 왕지로 24, 금강타워 2층 (담당 최순영, 010-2612-2242)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